

- 주요 뉴스: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연내 2회의 빅스텝(0.5%p 금리인상) 가능
 -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경제는 험난한 상황에 직면
 - 러시아 재무장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채의 채무불이행 유도 시 법적 조치
 - 중국 3월 생산자물가, 예상치 상회. 공급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국채금리 급등이 위험자산 선호 약화로 연결

주가 하락[-1.7%],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3년래 최고 수준
독일은 ECB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1bp 상승. '15년 9월 이후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235.4원, +2.3원) 0.2% 상승, 한국 CDS 상승

		4/11일	4/8일	전일대비			4/11일	4/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12.5	4,488.3	-1.69%	국채 금리 10y	미국	2.78%	2.70%	8bp
	유럽	458.26	460.97	-0.59%		독일	0.82%	0.71%	11bp
	중국	3,167.1	3,251.9	-2.61%	CDS 5y	한국	32bp	31bp	1bp
	일본	26,822	26,986	-0.61%		중국	68bp	64bp	4bp
	한국	2,693.1	2,700.4	-0.27%	위험 지표	EMBI+	-	371	-
환율	달러지수	99.99	99.80	0.19%		VIX	24.37	21.16	15.17%
	유로화	1.0884	1.0877	0.06%		WTI유	94.29	98.26	-4.04%
	엔화	125.37	124.34	-0.82%	원자재	구리	463.4	472.5	-1.93%
	위안화	6.3700	6.3650	-0.08%		금	1,953.5	1,947.5	0.31%
	원화	1,233.1	1,225.1	-0.6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연내 2회의 빅스텝(0.5%p 금리인상) 가능

- 에반스 총재는 정책금리를 연말 중립금리(2.25~2.5%)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하게 신속한 금리인상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
-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경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노동시장 역시 양호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일단 중립금리에 도달하면, 연준은 향후 경제 및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4/12일(화)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8.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 이와 관련 에반스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과 성장 모멘텀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연준의 월러 이사는 금리인상이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준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고용 혹은 생산 관련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금리인상 지속이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경제는 험난한 상황에 직면

-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공급망 차질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 다만 미국은 여타 주요국보다 이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

■ 미국 3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오름세 지속. 휘발유·식품가격 상승 등이 원인

- 뉴욕 연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인플레이션은 6.6%로 전월(6.2%) 대비 상승. 향후 1년 가계지출 전망도 7.7% 증가로 전월(6.4%) 대비 높은 수준

■ 러시아 재무장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채의 채무불이행 유도 시 법적 조치

- 실루아노프 장관은 채권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 역시 러시아가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객관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

■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 식품 공급대란 문제는 일부 해소될 전망

- 상하이시 당국은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 따라 도시를 '봉쇄구역', '통제구역', '예방구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봉쇄 수준을 차별화할 계획. 지금까지는 모든 지역에 전면봉쇄 조치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식품 등 필수품의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

■ 중국 3월 생산자물가, 예상치 상회. 공급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원인

- 해당 물가가 전년동월비 8.3% 올라 2월(8.8%) 대비 둔화되었으나 예상치(7.9%)를 상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지속. 노무라 증권은 고물가 지속 등으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
-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5% 올라 여타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 기록.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소비감소 등이 원인. Capital Economics는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의지를 고려 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3월 신규 은행대출은 3.13조위안으로 전월(1.23조위안) 및 예상치(2.68조위안) 모두 상회. 이는 인민은행의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완화정책 등이 배경

■ 일본은행, 대부분의 지역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

- 1/4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서 9개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에 대해 경기가 이전보다 둔화되었다고 평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공급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기회복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 다만 구로다 총재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 결국 경기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 또한 필요 시 즉각적인 추가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다카구치 하카에 이사는 엔화 약세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11 현지시각 기준)

- 영국 2월 산업생산(전월비): -0.6%, 1월(0.7%), 예상치(0.4%)

■ 주요 경제 이벤트(4/12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 강연, ECB 은행대출서베이
- 미국 3월 소비자물가, 독일 3월 소비자물가 및 4월 ZEW 경기예측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 향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 - 블룸버그

(How the ECB Should Begin to Normalize Monetary Policy)

-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공급망 혼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기업과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미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 이에 ECB는 고물가 해결 뿐 아니라 경기둔화도 피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올바른 대응
- 현재 ECB는 고물가 해결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억제 및 인플레이션 제어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또한 자산매입 중단은 역내 조달비용 상승과 성장둔화를 초래할 우려
- 이에 ECB는 계획하고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고수하기보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요구. 이는 ECB가 자산매입 종료로 유동성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도 차입비용의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

■ 미국의 1/4분기 기업실적 발표, 향후 증시 향방의 시험대가 될 전망 - WSJ

(Earnings Season Poses Next Trial for Volatile Stock Market)

-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상승 등 여러 비용증가 압력에 직면. 이에 1/4분기 기업실적은 비용증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금번 발표에 부정적 내용이 담길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소지
-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러 위험요인에도 금년 기업이익 전망을 상향. 다만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기업이익 증가는 어려우며, 증시 관련 낙관적 시각이 과도하다고 주장. 한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는 주가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연준, 금융시장보다 실물경제를 고려한 통화정책 제시가 중요 - Financial Times

(Monetary policy must serve the real economy not just financial markets)

■ 장기간 지속된 세계화의 종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화 - Financial Times

(The changing nature of globalisation)

■ 경기침체와 저성장 극복,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가속화가 관건 - 블룸버그

(How to Break Out From the Great Stagnatio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